

제 7 회 동남아시아 성균한글백일장

접수번호: 2020-SA120218

한글 성명: 화이란

나는 작년에 처음으로 가족의 품속에서 벗어나 한국에 유학갔다. 혼자서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 타지에 떠나서 잘 살 수 있을지, 빨리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됐다. 대학교의 일정 때문에 개강날짜보다 2주나 늦게 경희대 어학당에 입학했다. 그때 우리 반 담임 선생님이 서운남이라는 선생님이었다. 선생님 옆에 있을 때 20살 넘은 나는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왔다는 느낌이 들었다. 내가 반 친구랑 잘 어울리지 못할까 봐 걱정해주시고 쉬는 시간마다 우리 학생들에게 주말에 뭐했냐고 물어보곤 하셨다. 그냥 평범한 말쓰들이지만 그 안에 따뜻한 배려와 학생들이 한국 생활을 잘 즐길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담겨져 있었다. 지금 선생님 생각하면 수업에서 나한테 머리 염색하고 싶냐고 물어보시고 내 머리 쓰다듬으시면서 화이란이가 염색하면 이뻐겠다라고 말하셨

제 7 회 동남아시아 성균관글백일장

접수번호: 2020-SA120218

한글 성명: 화이란

단 추억이 떠오른다. 선생님 덕분에 한
 국 생활에 잘 적응했고 반친구랑 친해졌
 다.
 내 생일은 10월이였다. 작년 10월에
 처음으로 외국에서 생일을 보냈지만 친
 구들 덕분에 외롭지 않고 아주 기억에
 남는 생일을 보냈다. 한국 언니가 직적
 써준 생일엽서, 홍콩 언니가 직접 만들
 어준 디저트, 사소한 것들이지만 왜 나
 한테 그렇게 큰 감동을 줬을까? 외국에
 서, 사람들과 연결이 많지 않은 곳에서
 이렇게 작고 사소한 배려들이 고향을
 그리워하는 사람들의 마음에게는 따뜻한
 위로가 될 수 있다.
 배려라는 게 참 신기한 것이다. 배려
 는 연약한 마음에게 의지가 되고 상처
 를 받는 마음에게 위로가 되고 사람과
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지만 아주 든
 든한 연결이 될 수 있다. 어떨 때는
 배려가 은밀하게 정이 되어 사람의 마

제 7 회 동남아시아 성균한글백일장

접수번호: 2020-SA120218

한글 성명: 화이란

음 울 설 레 게 하 기 도 한 다 . 험 든 하 루
 끝 에 ' 오 늘 고 생 했 다 ' 라 는 누 군 가 의
 말 한 마 디 만 으 로 내 마 음 이 편 해 졌 고
 알 제 모 르 게 웃 음 이 났 다 . * 코 로 나 가 위
 험 하 니 까 밖 에 나 갈 때 마 스 크 꼭 챙
 겨 " , * 운 전 은 조 심 히 해 " , 맨 날 들 은
 소 리 이 지 만 왜 지 겹 지 도 많 지 . 예 상 하 지
 못 한 상 황 이 버 려 졌 는 데 도 , 보 고 싶 은
 사 람 을 만 날 수 없 는 데 도 , 서 로 배 려 해
 주 고 , 걱 정 해 주 는 따 뜻 한 마 음 은 항 상
 전 달 이 된 다 .
 코 로 나 때 문 에 사 회 적 연 결 이 늘 어 지
 고 사 람 과 사 람 의 사 이 가 그 어 느 때 보
 다 약 해 지 고 있 다 고 느 낄 수 있 다 . 코
 로 나 를 원 망 할 수 도 있 고 . 나 도 가 끔
 코 로 나 를 원 망 했 다 . 내 가 사 랑 하 는 사 람
 을 보 고 싶 을 때 , 그 대 의 따 뜻 한 포 용
 을 그 리 워 할 때 ... 하 지 만 잘 알 고 있 다 .
 얼 굴 을 못 보 고 목 소 리 만 들 을 수 있
 지 만 서 로 에 게 주 는 배 려 가 그 대 로 라 는

제 7 회 동남아시아 성균한글백일장

접수번호: 2020-SA120218

한글 성명: 화이란

절.
 눈 에 멀 어 지 면 마 음 도 멀 어 지 는 게
 틀 린 말 이 라는 걸
 그 리 고 코 로 나 가 절 대 우 리 사 이 에
 장 애 물 이 될 수 없 다 는 걸
 지 금 코 로 나 를 그 만 원 망 하 기 로 했 다
 코 로 나 때 문 에 못 하 는 것 도 많 지 만 코
 로 나 덕 분 에 잘 보 이 게 되 는 것 도 많
 다. “ 오 즘 베 트 남 에 서 코 로 나 가 좀 나
 아 졌 어 ? ” 라는 친 구 들 의 적 정 해 주 는 말
 과 “ 건 강 을 항 상 잘 챙 겨 라 ” 라는 부
 모 님 의 말 씀 을 들 으 니 나 는 배 려 를 많
 이 받 고 살 고 있 구 나 라는 느 낌 이 들 었
 다. 그 래 서 이 렇 다 하 시 코 로 나 덕 분 에
 사 람 들 의 마 음 이 서 로 에 게 가 까 워 지 는
 건 아 닌 까 라는 생 각 이 들 기 도 한 다.
 거 대 한 것 들 을 추 구 하 기 보 다 나 는 제
 속 해 서 내 주 변 사 람 들 속 에 서 또 는 내
 인 생 에 서 작 고 사 소 한 배 려 심 을 추 구 할
 것 이 다. 그 리 고 나 도 내 가 사 랑 하 는 사

제 7 회 동남아시아 성균한글백일장

접수번호: 2020 - SA120218

한글 성명: _____

화이란

[illegible]